

트럼프 “이란, 韓화물선 공격...韓, 작전 합류할 때 됐다”

호르무즈 개방 작전 한국軍 파병 재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후 ABC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차례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너선 켈 ABC 뉴스 기자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전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호르무즈 항해하는 이란 예인선

4일(현지시간) 이란 ISNA 통신이 입수한 이 사진에서 이란 국적의 예인선 바심호가 이란 남부 반다르 압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선박 근처를 항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기자 질문에 “우리가 그걸 조사할 것”이라

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공격 주체를 밝히

지는 않은 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다”며 “(해방 프로젝트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자국 선박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견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3월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에너지 공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나라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하는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를 기대했으나, 이들 국가가 곧바로 화답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러 휴전 요청 없었지만 6일 자정부터 휴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오는 8-9일 휴전을 선언한 것에 대응, 우크라이나군은 오는 6일부터 자체적인 휴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메니아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러시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적대행위 중단 방식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기념일 행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시작되는 휴전 체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호의 없이는 모스크바에서 열병식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만큼 러시아 지도자들이 종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할 때”라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앞서 러시아 국방부가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을 맞아 오는 8-9일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에 골려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PC 회의 연설에서는 러시아가 9일 모스크바에서 전승절 열병식을 군사 장비 없이 축소해 개최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들은 군사 장비를 마련할 여력이 없고, 무인기(드론)가 붉은광장 하늘을 맴돌까 봐 두려워한다”며 “이는 그들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의견에도 반대해달라”고 유럽 국가들에 호소했다.

또 “러시아의 불법 석유 운송 선단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러시아에 전쟁 자금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림자 선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휴전 방침을 선언하면서 전승절인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러시아군 열병식을 우크라이나가 방해할 경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올해 8주년 전승절 행사를 군사 장비 없이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방중 때 김정은 만나는 일정 현재 없다”

‘번개회동’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15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현재’(currently)라는 단서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13일 미국 방문 도중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여분간 ‘깜짝 면담’을 한 뒤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잘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엔 중국 가는 시기 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밀당 필요 없어요’...일본인 17% “AI에 사랑 느껴본 적 있다”

업무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으면 “저는 당신의 야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으니까요”라는 달콤한 말로 위로를 건넨다.

데이트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고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나와의 대화에만 몰두해 준다.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언제 올지 초조해하며 ‘밀고당기기’를 할 필요도 없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내놓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본에서 연애에 대화 상대를 대체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요미

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 가족사회학자인 주오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가 일본의 20-50세 8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I를 사적으로 써 본 이용자 6명 중 1명가량이 ‘AI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응답했다.

AI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는 26%, ‘종종 있다’는 66%, ‘드물게 있다’는 7.5%로 AI에 애정의 감정을 느껴본 응답자가 16.7%를 차지했다. 조사에서 생성형 AI에

친밀함을 느끼는 이는 60%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AI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은 5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8%)을 근소하게 앞섰다.

야마다 교수는 “생성형 AI는 마치 취미와 가치관이 같은 상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며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돈도 별로 들지 않는 AI와 연애를 즐기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개인별,수시접수 (이론,실기)	▶ 2급/28만
		파크골프,지도사1급		▶ 1급/35만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2급/누구나 가능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